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명 및 직 위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민호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전문연구원
출장기간	2026년 7월 7일(화) ~ 7월 10일(금) (3박 4일)			
출장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출장목적	- 2026 OECD 성평등 포럼 참석을 통한 디지털 전환·AI와 성평등 관련 국제 논의 동향 파악 - 김종숙 원장의 세션 패널 참여를 통한 본원 연구성과 및 한국 성평등 정책 공유 -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스웨덴 성평등청,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 여성리더십 글로벌연구소, OECD 고용노동사회국 등 주요 기관 면담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후속 협력방안 논의			
경비부담	본원 부담 (₩17,560,600)			
주최기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출장 주요내용	•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활용(Harness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All)」을 주제로 개최된 2026 OECD 성평등 포럼에 참석하여 디지털 전환·AI와 성평등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및 각국 정책사례를 파악 • 김종숙 원장이 세션 5(포용적 디지털 전환의 실현), 세션 8(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 G7+ 관점)에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성평등 정책·연구성과를 발표 • 주요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임금투명성·여성리더십·AI와 노동 등 분야의 후속 공동연구 및 교류 기반을 마련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양성평등 국제협력 전략
연구(II)

OECD 고위급 양성평등 국제포럼 참석을 위한
프랑스 파리 출장

출장 복명서

2026. 7.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협 력 센 터

1

출장 개요

1. 기간: 2026년 7월 7일 - 7월 10일 (2박 4일)
2. 출장지: 프랑스 파리
3. 출장자: 김종숙 원장, 이민호 국제협력센터장, 박윤정 전문연구원(총3명)

<출장자 역할 분담표>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
김종숙	원장	- OECD 고위급 양성평등 국제포럼(Session 5, Session 8) 패널 토론 참석 및 발표 -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기반 강화 - 국제포럼 참석을 통한 글로벌 양성평등 정책 동향 파악
이민호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부연구위원)	- OECD 고위급 양성평등 국제포럼 참석 및 국제협력 실무 총괄 -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 의제 발굴 지원 - 국제 양성평등 정책 및 국제협력 동향 파악
박윤정	국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 OECD 고위급 양성평등 국제포럼 참석 및 국제협력 실무 지원 - OECD 및 국제기구 관계자 면담·네트워킹 지원 - 국제협력 관련 실무 지원

4. 출장 목적 및 배경

가. 목적

- OECD 고위급 양성평등 국제포럼 참석 및 패널 토론 참여
- OECD 회원국의 성평등 정책 동향 및 향후 협력 과제 파악
-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나. 배경

- OECD는 2026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OECD Forum on Gender Equality(OECD 고위급 양성평등 국제포럼)」를 개최하며, 올해 포럼은 “Harness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All”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양성평등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함. 주요 의제로는 AI 기반 서비스와 여성의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과 돌봄경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여성 리더십 및 기술역량, 온라인 공간에서의 기술 기반 젠더폭력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OECD 측은 본원 김종숙 원장에게 포럼 세션5 「Skills to Lead Digital Transformation: Who Gets to Learn and Lead」 및 포럼8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digital transition: the G7+ perspective to foster a more inclusive and equal environment」 패널 참여를 공식 요청하였음.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AI 확산 과정에서 여성의 기술 인재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격차와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며, 조기 단계부터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 경험과 대응 사례 공유를 요청함.

- 또한 본 포럼은 OECD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국제회의로, 디지털 전환과 양성평등 관련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II. 출장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7/7 (화)	오전	○ 헤이그 → 파리 이동*	헤이그→파리
	오후	○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면담	파리
7/8 (월)	오전	○ OECD 성평등 포럼 1일차 참석	파리
	오후	○ 스웨덴 성평등청 면담 ○ 세션 5: 포용적 디지털 전환의 실현 (김종숙 원장 패널 참여) ○ 킹스칼리지런던 여성리더십 글로벌연구소 면담	
7/9 (화)	오전	○ OECD 성평등 포럼 2일차 참석 ○ 세션 8: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 G7+ 관점 (김종숙 원장 패널 참여)	파리
	오후	○ OECD 고용노동사회국 면담 ○ 파리 20:35 → 인천 15:50(+1일) (KE902, 12시간 15분)	파리→인천
7/10 (금)	오후	○ 인천 15:50 도착	인천

※ 비고: 2026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네덜란드 학제간연구연구소(NIDI) 협력회의 참석을 마친 후, OECD 고위급 양성평등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헤이그에서 파리로 이동함.

2

OECD 성평등 포럼¹⁾

1) 포럼 세션 영상 및 주요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oecd-events.org/e/forum-on-gender-equality/en>(접근일: 2026.7.22.)

1. 회의명: 2026 OECD 성평등 포럼(2026 OECD Forum on Gender Equality)
2. 주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활용(Harness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All)」
3. 일시: 2026. 7. 8.(수)-7. 9.(목), 2일간 총 13개 세션
4. 장소: 프랑스 파리, OECD 콘퍼런스 센터(OECD Conference Centre)
5. 주최: OECD
6. 성격 및 규모
 - 2024년 제1회 포럼에 이은 제2회 포럼으로, 디지털 전환(특히 AI 확산)이 성평등에 미치는 기회와 위험을 2일간 13개 세션에 걸쳐 논의; 각국 장관·차관,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였음.
 - 본원 출장단은 포럼 전 일정에 참석하였으며, 김종숙 원장은 세션 5(포용적 디지털 전환의 실현)·세션 8(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 G7+ 관점)에 패널로 참여
7. 세부 프로그램

1일차 - 2026년 7월 8일(수)	
08:30-09:15	등록
09:15-09:40	세션1: 개회사 및 기조연설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09:40-10:40	세션2: 공동의장 개회 세션: 사람 중심의 성평등 대응형 디지털 전환 사회: Stefano Scarpetta, OECD 경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국장 발표 - Aurore Bergé, 프랑스 남녀평등 및 차별대응부 장관 - Katharina Jestaedt, 독일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여성 및 성평등국 국장 - Lubna Jaffery, 노르웨이 문화평등부 장관 - Katarina Lundahl, 스웨덴 성평등부 국무장관 - Stéphanie Lachat, 스위스 연방 성평등청 공동대표 - Kevin McCarthy, 아일랜드 아동·장애·평등부 사무총장 - Gillian Unsworth, 영국 평등기회청 여성평등 담당 부국장
10:40-11:00	휴식
11:00-12:15	세션3: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여성 역량강화 사회: Elsa Pilichowski, OECD 공공거버넌스국 국장 발표 - Federico Cuello,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OECD 조정관 - Rafał Kownacki, 폴란드 디지털부 국제협력국 국장 - Åsa Regnér, UNESCO 사무차장(Deputy Director-General) - Kamil Šaško, 슬로바키아 보건부 장관
12:15-13:45	점심
13:45-15:00	세션4: 디지털 기술·데이터와 돌봄경제의 미래

	사회: Monica Queisser, OECD 사회정책국장 선임자문관 발표 - 정희정(Heejung Chung), 킹스칼리지 런던 킹스 글로벌 여성리더십연구소 소장 - Martin Duggan, Martin Duggan Ventures Limited 최고경영자(CEO) - Sarah Jameson,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선임 정책자문관 - Ana María Carmen Redondo García, 스페인 평등부 장관
15:00-15:20	휴식
15:20-16:35	세션5: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역량 개발 사회: El Iza Mohamedou, OECD 기술센터장 발표: - Thomas Breda, 파리경제학교 경제학 교수 - Madhuparna Datta, 상원의원, Society of Women Engineers 글로벌 홍보대사 및 Cambridgeshire 지부설립자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Cláudia Sarrico, 포르투갈 교육·과학·혁신부 고등교육 담당 국무장관 - Alicja Wejdner-Cichy, 폴란드 Lewiatan 연맹 경제학자 및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전문가
16:35-17:50	세션6: 여성 기업가 정신: 디지털 혁신의 미개발 자원 사회: Lucia Cusmano, OECD 기업·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CFE)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부문장 발표 - Marie-Anne Barbat-Layani, 프랑스 금융시장청장 - Nadim Ahmad, OECD 기업·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CFE) 부국장 - David Brück, 아일랜드 OECD 주재 상임대표(대사) - Faith Goodman, VeriStell Institute 설립자 - Robin Mearns, 세계은행 젠더 국장 - Paula Redondo Pereira,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정부협력 및 규제전략 총괄 - Sabrina Salama, Seedstars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총괄 - Rechie Valdez, 캐나다 여성·성평등부 장관 겸 중소기업·관광 담당 국무장관
18:00-19:30	네트워킹 리셉션
2일차 - 2026년 7월 9일(목)	
08:00-09:15	등록
09:15-09:30	세션7: 2일차 개회사

	The Rt Hon Baroness Smith of Malvern, 영국 기술부 장관 겸 여성·평등부 장관
09:30-11:00	세션8: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 G7+ 관점 사회: Femi Oke, 전문 사회자 발표 - Ando Toshihide, 일본 OECD 주재 상임대표(대사) - Alice Apostoly, VSCYBERH 정책옹호관(Advocacy Officer) - Éléonore Caroit, 프랑스 프랑코포니 및 재외국민 담당 국제대표 (International Delegate) - Katharina Jestaedt, 독일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여성 및 성평등국 국장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Rechie Valdez, 캐나다 여성·성평등부 장관 겸 중소기업·관광 담당 국무장관 - Gillian Unsworth, 영국 평등기회청 여성평등 담당 부국장
11:00-11:15	휴식
11:15-12:30	세션9: 디지털 시대의 여성 공적 인물 대상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사회: Kevin Magron, OECD 과학기술혁신국 부국장 발표 - Caterina Bolognese, 유럽평의회 성평등국 국장 - Alison Comyn, 아일랜드 상원의원 - Simone Lyman, Public Discourse Foundation 토론 플랫폼 프로젝트 책임자 - Laura Rissanen, 핀란드 사회보건부 국무장관 - Jamila Rodrigues Venturini, Derechos Digitales 사무총장 - David Wright, SWGfL 최고경영자 - Eva Villarreal Pascual, 미주기구(OAS) 선임 법률전문가
12:30-13:45	점심
13:45-14:00	세션10: 기초연설 - Yuriko Backes, 룩셈부르크 성평등·다양성부 장관 - Hadja Lahbib, 유럽연합 평등·대비태세·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
14:00-15:15	세션1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 젠더 관점 사회: 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혁신국 국장 발표 - Iain Drennan, WeProtect Global Alliance 사무총장 - Sasha Havlicek, 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대표 - Emily Laurie, Together for Girls 프로그램 및 정책옹호 부문 선임국장

	- Bengt Nilsson, 스웨덴 고용부 부국장 - Joanna Villarreal, 주프랑스 파나마 대사 - Anika Wells, 호주 통신부 장관 겸 스포츠부 장관
15:15-16:30	세션12: 온라인 공간의 제한적 남성성 규범 대응 사회: 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발표 - Paula Garuz Naval, Tremau 신뢰 및 안전(Trust & Safety) 부문 수석 - Katharina Jestaedt, 독일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여성 및 성평등국 국장 - Siyabulela Jentile, Civic Root Advocacy 사무총장 - Chloé Morin, 정치분석가 및 저술가 - Jake Stika, Next Gen Men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 Pirjo Turk,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평등정책국 국장
16:30-16:40	세션13: 폐회사 - František Ruzicka, OECD 사무차장(Deputy Secretary-General) 발표 - Cecilia Schwoerer Lyche, 노르웨이 문화평등부 차관보 겸 OECD 성주류화 및 거버넌스 작업반(GMG) 의장 - Kevin McCarthy, 아일랜드 아동·장애·평등부 사무총장

패널 토론 요약

□ 세션 1: 개회사 및 기조연설

- 개회사 및 기조연설에서는 2년 전(2024년) 약 10%에 불과하던 기업의 AI 도입률이 현재 3분의 1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디지털 전환이 성평등에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성별 격차 해소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함.

□ 세션 2: 공동의장 개회 세션: 사람 중심의 성평등 대응형 디지털 전환

- 본 세션에서는 지난 20~30년간 각국의 성평등 진전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논의함.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기업 도입률 10%→33%)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디지털 도구 활용 저조, 자동화 위험 직군 집중, ICT 직군 과소대표 등 성별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성별 격차 해소가 인재 활용 측면의 경제적 당위성을 가진다는 점에 공감함.
- 노르웨이는 대규모 언어모델의 편향을 보완하기 위한 소규모 언어모델 개발과

남성·소년 성평등 백서 준비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스웨덴은 젠더기반폭력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젠더기반 허위정보 대응 및 소셜미디어 연령제한(15세)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함.

- 독일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 젠더기반폭력 예방, 남성 및 소년 참여를 성평등 정책의 3대 우선순위로 설정하였으며, 디지털 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성 5명 중 1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함. 아일랜드는 범정부 「여성·소년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EU 의장국으로서 평등과 경쟁력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였고,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시행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계획을 발표함.

□ 세션 3: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여성 역량강화

- OECD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공공서비스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여성을 위한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AI 활용에 대한 신뢰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여성 38%, 남성 31%).
- 슬로바키아는 의료 디지털화(e-처방) 의무화를 통해 간호 인력(약 90% 여성)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AI를 심전도 판독, 질병 예방, 정신건강 분야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함.
- UNESCO는 2021년 194개 회원국이 채택한 「AI 윤리 권고」와 준비도 평가 방법론(RAM)을 소개하고, 교사·사서 등 여성 다수 전문직의 관점을 AI 개발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말라위의 젠더폭력 대응 AI 챗봇 사례를 공유함.
- 폴란드는 AI가 대출, 채용, 의료 트리아지 등에서 역사적 차별을 학습할 위험성을 지적하고, 직장 내 AI 활용률이 남성(41%)보다 여성(29%)에서 낮은 점을 소개하며 '접근 부재→데이터 부재→서비스 부재'의 악순환을 경고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여성 대졸자 비율이 중남미 최고 수준(66%)임에도 STEM 분야 진출은 저조한 상황을 설명하고, 콜센터·BPO 등 여성 집중 직군의 자동화 위험과 재훈련(reskilling)의 필요성을 강조함.
- 참석자들은 성별 분리 데이터 구축,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투자 및 젠더 관점 반영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세션 4: 디지털 기술·데이터와 돌봄경제의 미래

- OECD 국가에서 여성이 무급 돌봄노동의 불균형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으며(LTC 분야 여성 비중 평균 87%),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33년까지 장기요양(Long-term Care, LTC) 인력 수요가 약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조기술, 원격모니터링, 텔레헬스 등 디지털 기술이 돌봄 부담 경감과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로봇 설계 과정에서 여성 목소리와 페르소나 등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됨.

- 플랫폼 기반 돌봄노동의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사회적 보호 수준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디지털 전략과 함께 젠더 포용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성이 논의됨.
- 참석자들은 돌봄 인프라 투자, 돌봄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 남성의 돌봄 분야 진입 장벽 해소가 균형적인 디지털 전환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함.

□ 세션 5: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역량 개발²⁾

- 남녀 간 기초역량(수리력 등)은 유사한 수준이나, 전공 선택, 진로, 자신감, 리더십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여성은 일부 분야에 과대표되고 남성은 돌봄 및 교육 분야에 과소대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포르투갈은 여성의 문제는 '접근'이 아닌 '활용'에 있으며, 교육에서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조기에 분리된다고 설명함. 또한 25~34세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50% 이상)이 남성(약 1/3)을 상회함에도 ICT 전공자는 여성 5명 중 1명에 불과한 점을 소개하며, 단순한 '참여'가 아닌 '경로·성공·진출'을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프랑스는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수학 성별 격차가 없으나 입학 후 4개월 만에 격차가 확대되며, 이는 생물학적 요인이 아닌 교사와 부모의 무의식적 성 고정관념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또한 학생들에게 실제 성적 순위를 알려주는 저비용 개입만으로 성별 격차의 70%가 감소한 사례를 소개함.
- 여성엔지니어협회는 롤모델, 멘토 및 스폰서의 중요성과 여성 전용 학습공간의 효과를 소개하고, AI를 채용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사례를 공유함.
- 폴란드 Lewiatan은 기술역량, 사회인지역량, 평생학습을 3대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고용의 40%가 AI의 영향을 받는 반면 남성은 26%인 점을 소개함. 또한 20년간 추진한 'Girls as Engineers' 캠페인(롤모델, 기업 연계, 전 과정 파이프라인 측정) 사례를 공유함.

○ 김종숙 원장 주요 발언

- KWDI가 UNECE 24개국 「세대와 젠더 조사(GGS)」와 연계한 「한국가족패널조사(KoFPS)」에 착수하였으며,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공동 수집·분석을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 해법을 모색하고, 특히 청년 남녀의 인식 격차에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함.
- 한국의 청년 실업, 특히 고학력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며, KWDI의 「국가전략산업 성평등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반도체, 에너지, 조선 등 8개 국가전략산업의 여성 교원 및 책임연구자 비중이 약 10%로 전체 STEM 분야 여성 비중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또한 국가 예산 배분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 패널 참여

시 성평등한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디지털 전환과 산업 발전이 성별 격차의 자동적인 해소를 보장하지 않으며, 현재의 산업 및 직종 구조가 유지될 경우 성별 격차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여성가족부가 AI·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AI 젠더편향, 기술기반 젠더폭력, 노동시장 영향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 공공 및 민간으로 성평등 대응형 거버넌스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KWDI가 AI 개발자 인터뷰를 통해 한국 특화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을 제언하였으며, 현재의 영어 기반 벤치마크는 언어·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정책 개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함.
- KWDI 조사 결과 청소년의 26.7%가 온라인 성적 대화를, 36.6%가 사진·영상의 교환 또는 요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 세션 6: 여성 기업가 정신: 디지털 혁신의 미개발 자원

- EU 내 여성 ICT 자영업자 비중은 18%로 여타 분야(34%)보다 낮았으며, 딥테크 기업의 여성 창업자 비중도 약 20%로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벤처캐피탈(VC) 펀딩에서 여성 단독 창업팀은 2%, 혼성팀은 16%에 그쳐 자금 조달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제시됨.
- 여성 주도 딥테크 스타트업은 초기 자금 확보에 평균 5개월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며, VC 의사결정자 중 여성 비중도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소개됨.
- EU의 Women TechEU(비회석 자금 7만 5천 유로 지원 및 멘토링), 아일랜드의 NextWave 액셀러레이터(2025년 출범) 등 여성 창업 지원 정책 사례를 공유함.
- 참석자들은 성별 격차 해소 시 유럽 경제에 최대 1,81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멘토십과 네트워크, 자원 접근성 강화, VC 성별 분리 데이터 수집 및 여성 투자 의사결정권자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2 일차

□ 세션 7: 2일차 개회사

- 2일차 포럼 개회사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시행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추진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함.

□ 세션 8: 디지털 전환의 도전과 기회: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 G7+ 관점³⁾

- 디지털 전환이 성평등에 제공하는 기회와 위험을 함께 논의하며, '디지털 변화는 본질적으로 성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넘어 성평등 관점을 정책과 기술 개발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함.
- 캐나다는 성별기반분석플러스(GBA+)와 성인지예산법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6,050만 달러의 여성·성평등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1억 3,200만 달러를 상시 배정하고 있다고 소개함. 또한 AI 민주화와 안전성 확보, 데이터 편향 제거를 위한 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영국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젠더폭력 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 규제기관, 학계와의 협업 및 해커톤 운영 사례를 소개함.
- 독일은 소녀 대상 코딩·AI 학습 플랫폼, 여성 창업가 대상 AI 차별 대응 훈련, 디지털 경제자립 생애지도(Life Map), 법안 성평등 영향평가를 지원하는 AI 도구 등 4가지 정책 사례를 공유함.
- 일본은 제6차 성평등 기본계획을 통해 기술 분야의 성주류화와 성평등을 위한 기술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개정된 OECD AI 원칙,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및 OECD 젠더격차 대시보드 등을 중심으로 다자협력과 국제표준에 젠더 관점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함.
- 플로어 토론에서는 이탈리아가 이스탄불협약 이행, 2025년 AI 규제법 및 페미사이드 범죄화 추진을 소개하였으며, 케냐는 농촌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이 21.7%에 불과한 점을 설명하고, 포용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을 우선 과제로 제시함.

○ 김종숙 원장 주요 발언

-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주도 사회에서 청년 고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AI 등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인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새로운 역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함.
- STEM 졸업생의 성별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STEM 지원 조직을 운영하며 멘토십 제공과 참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여성 기업가와 리더 육성을 국가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5년 단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함.
- 2025년부터 한국이 Horizon Europe 준회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참여 요건인 성평등계획(Gender Equality Plan)이 의무화되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성평등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기관의 정책과 관행에 성평등 관점이 보다 체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 패널 참여

계적으로 통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함.

-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여성 참여 비율이 약 10%로 일반 STEM 분야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여성의 STEM 분야 참여 확대만으로는 직종분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성별 격차가 자동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강조함.
-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분야에도 기술을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함.
- 국가 간 경험 공유(sharing the experiences)를 통해 우수사례와 정책 경험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함.

□ 세션 9: 디지털 시대의 여성 공적 인물 대상 젠더 기반 폭력 대응

- 전 세계 여성의 16~58%가 기술활용 성기반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F-GBV)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인은 특히 취약한 것으로 소개됨. 또한 온라인 폭력이 여성의 정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UN Women 동유럽·중앙아시아 조사에서는 18~24세 여성의 53.2%가 최소 1가지 이상의 TF-GBV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2019년 대비 550% 증가하였으며,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99%가 여성인 것으로 제시됨. 또한 AI가 맞춤형·자동화된 온라인 괴롭힘을 가능하게 하면서 2021~2025년 여성 관련 AI 사건 및 위험이 4.7배 증가한 것으로 소개됨.
- EU의 「여성폭력대응지침(2024/1385)」(2027년 회원국 이행 완료 예정)과 미국의 「TAKE IT DOWN Act」(2025년, AI 생성 비동의 친밀 이미지(NCII)의 연방 범죄화 및 48시간 내 플랫폼 삭제 의무) 등 최근 주요 입법 사례를 공유함.
- 참석자들은 플랫폼의 안전설계, 신속한 삭제 조치 및 투명성 보고 등 플랫폼 책임 강화와 함께 법집행 역량 강화, 피해자 중심 접근, 글로벌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대응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Action on GBV Online)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세션 10: 기조연설

- 룩셈부르크는 포럼 공동주최국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성평등을 핵심 의제로 한 다자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를 강조함.
-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전환과 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I법(AI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등 EU의 주요 디지털 규제체계에 성평등 관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소개함.

□ 세션 1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안전: 젠더 관점

- 15세 청소년의 9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세 이전 스마트폰 보유율도 70%에 달하는 등 아동의 디지털 노출이 보편화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7~2022년 사이버불링 피해 비율이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11~15세 아동 6명 중 1명이 이를 경험한 것으로 소개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여아는 온라인 성적 착취, 사이버불링, 신체이미지 문제 및 소셜미디어 과다 이용에, 남아는 금전성적협박, 게임 플랫폼을 통한 착취 및 외로움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설명됨. 또한 남아의 경우 피해를 과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됨.
- AI 생성 아동 성적 착취물(CSEA) 관련 사건이 2022~202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피해 대상의 대부분이 여아인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위치 공유 및 감시 기능을 활용한 기술기반 강압통제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됨.
- 참석자들은 플랫폼의 안전설계 의무화, 연령 확인 메커니즘 강화,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호주, 영국, 아일랜드 등의 디지털 안전 전담 규제기관 설치 사례를 공유함.

□ 세션 12: 온라인 공간의 제한적 남성성 규범 대응

-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미소지니(misogyny) 콘텐츠를 증폭시키면서 관련 콘텐츠 노출이 5일 이내 최대 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노스피어(Manosphere), 인셀(Incel) 그룹 등 온라인 커뮤니티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혐오 담론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소개됨.
- 전 세계 인구의 35%가 여성의 더 높은 소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45%는 일자리 부족 시 남성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성차별적 사회규범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미국에서는 2017~2025년 제한적 남성성을 지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제시됨.
- 미소지니 콘텐츠에 대한 노출은 성기반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젊은 남성의 심리적 고통, 경제적 불안정, 외로움 등 취약성과 결합될 경우 극단적 콘텐츠에 대한 흡인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설명함.
- 참석자들은 디지털·정서적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조기 개입,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청년 남성을 변화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캐나다의 Next Gen Men, 영국의 Beyond Equality, 세네갈의 Schools for Husbands 등 관련 이니셔티브 사례를 공유함.

□ 세션 13: 폐회사

- 공동의장은 2일간의 포럼 논의를 종합하며, AI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주류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 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독려함.
- 아울러 포럼의 주요 논의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노르웨이·아일랜드 공동의장 명의 요약문(Co-Chairs' Summary)을 별도로 발간할 예정임.

공동의장 요약문

□ 주요내용

- 공동의장은 디지털 전환이 경제, 노동시장, 공공서비스 및 사회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성평등을 디지털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통합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성별 격차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 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관점을 주류화하고,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이 동등하게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임을 제시함.
- 디지털 기술은 보건, 돌봄, 사회보장,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접근성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AI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STEM 분야의 성별 격차, 여성의 디지털 기술 및 창업 참여 부족 등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함. 또한 여성의 디지털 역량 강화, 리더십 확대, 금융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 기술활용 성기반폭력(TF-GBV)과 AI 기반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폭력이 여성과 소녀의 안전과 민주적 참여를 위협하는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AI의 신뢰성 확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아울러 디지털 정책 전반에 성평등 목표를 통합하고, 성별 분리통계 구축, 정부 부처 간 협력, 국제협력 및 OECD의 증거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함.

3

기관 면담 결과

1. 주 OECD 대표부

□ 일시: 2026. 7. 7.(화) 12:30-14:00

□ 주요내용

- 제2차 OECD 고위급 양성평등 국제포럼을 계기로 면담을 갖고,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국제 동향과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또한 OECD 회원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OECD 성평등 포럼 참가 결과와 주요 연구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향후 OECD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과 연구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을 설명함.

2. 스웨덴 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 일시: 2026.7.8.(수) 13:00-14:00

□ 주요내용

- 최근 협력 경과 및 기관 현황 공유
 - 양 기관은 2026년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국제행사에서 스웨덴 성평등청(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Anna Collins-Falk 선임정책관이 발표자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협력을 시작하였으며, 금번 OECD 성평등 포럼을 계기로 다시 만나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요 연구 추진 현황과 한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및 정책 환경을 소개하고, 중앙정부 내 젠더 담당체계(gender focal point) 확대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 주요 정책 동향을 공유함.
- 한국-스웨덴 성평등 정책 현황 및 주요 이슈 논의
 - 스웨덴 성평등청은 최근 스웨덴에서도 청년 남성의 보수화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여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이 소셜미디어와 매노스피어(manosphere) 등 젠더화된 온라인 공간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소개함. 양 기관은 한국의 병역 경험과 남성 피해의식 등 양국의 사회적 배경을 공유하며, 성평등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로운 가치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중요성에 공감함.
 - 양 기관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공통 관심 분야로 확인하고,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함. 스웨덴은 2006년부터 대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선조치를 부과하는 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한국은 내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임금투명성 정책으로 확대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운영기관을 맡을 예정인 만큼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상호 관심을 표명함.

- 또한 아이슬란드의 동일가치노동 기반 임금격차 해소 모델과 직무가치 평가의 어려움, 스웨덴의 노사 협상 방식, EU 임금투명성 지침 및 신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내 성평등 기금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3. 킹스칼리지런던 여성리더십글로벌연구소(King's Global Institute for Women's Leadership)

□ 일시: 2026.7.8.(수) 16:30-17:30

□ 주요내용

○ 연구 현황 공유

- 여성리더십글로벌연구소(Global Institute for Women's Leadership)의 주요 연구 분야와 활동을 소개함. 연구소는 여성 리더십, 기업가정신, 노동시장, AI, 웰빙, 일·생활균형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웰빙이 경제성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AI와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precarity)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관련 지표를 개발한 후 후속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아울러 2017년부터 30개국을 대상으로 현대 사회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남성의 피해 의식과 결혼·출산율 저하 간의 연관성 등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고용과 노동시장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공통 관심 분야와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4. OECD 고용노동사회국

□ 일시: 2026.7.9.(목) 14:00-15:00

□ 주요내용

○ 연구 현황 공유

- OECD 고용노동사회국에서 추진 중인 미래의 일(Future of Work) 및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주요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논의 동향을 공유함.
- 특히 독일 정부 지원으로 추진 중인 「AI와 여성(AI and Women)」 연구를 소개하며, 문헌검토, OECD AI 노출도 분석 및 독일 기업 사례연구

를 바탕으로 2026년 9~10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또한 AI 노출도 자체는 남녀 간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은 행정직·중숙련 직종과 돌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AI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동일 직종 내에서도 여성의 AI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요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고용과 노동시장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AI와 디지털 전환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